

미국평가학회(AEA) 참가기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명예교수 노 화 준

1. 개요

미국평가학회(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AEA) 22차 연례 컨퍼런스 및 워크숍이 2008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콜로라도 덴버시에서 개최되었다. 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해 AEA 워크숍과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내가 AEA 참가기를 쓰기로 생각한 것은 AEA의 운영방식이 우리나라 학회의 운영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이다.

AEA는 회원이 약 5,000여 명이며, 국제학회가 아니고 미국학자들 중심의 학회지만 이 학회에는 캐나다를 비롯하여 유럽 각국, 호주, 뉴질랜드, 중남미 및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학자들도 참여하는 대규모 학회이다.

이 학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의 하나는 회원들의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다양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회운영이 주제관심그룹(topical interest group: TIG)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구성을 보면 회원들은 어느 단일분야, 예컨대 행정학이나 교육학 등과 같이 어느 한 학문분야가 아니라 행정학, 교육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환경학, 농학, 범죄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 학문분야에서 발전시킨 평가에 관한 이론과 접근방법들이 회원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고, 평가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들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학회운영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회원들이 40여개에 달하는 TIG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 학회에 가입하면 누구나 4~5개의 TIG에 가입할 수 있으며, 원하면 TIG를 변경할 수도 있다. 몇 개의 TIG를 예시하면, 정부평가, 창도와 정책변화, 평가활용, 보건평가, 사회복지, 고등교육평가, 과학기술, 알콜·약남용·정신건강, 경영과 산업, 범죄 및 사법, 니즈사정, 비영리 및 재단평가, 질적평가, 계량적평가, 시스템적 평가, 평가교육, 평가이론, 조직학습과 평가역량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앞에 든 TIG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TIG는 학문분야와 관련된 것도 있고, 사회활동 및 평가의 접근방법과 관련된 것들도 있다. 따라서 한 회원이 적어도 4~5개의 TIG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의 학문적 백그라운드에 따라 자기 전공분야의 TIG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의 관심분야나 접근방법의 관심분야에 따라 TIG를 선택하여 가입하고 활동하므로 자연스럽게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회원들과 네트워크도 발전시킬 수 있고, 다른 회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다른 분야에서 발전시킨 평가이론이나 방법론들을 배울 수 있으며, 새로운 평가이론이나 방법론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컨퍼런스에서 논문을 발표할 세션이나 라운드테이블 등의 결정도 TIG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평가학회는 매년 11월 초에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개최되며, 그 중 약 3.5일 정도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3.5일 정도는 컨퍼런스(conference)를 진행한다. 다음에는 이들 워크숍과 컨퍼런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워크숍

AEA는 2008년 11월에 워크숍을 3.5일 동안에 56개 주제로 진행하였다. 56개 워크숍 중 2일 간(12시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은 8개 주제, 1일 간(6시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은 27개 주제, 반일 간(3시간) 진행되는 워크숍은 21개 주제였다. 상대적으로 볼 때 2008년도에는 2006년도에 비해서 2일 간 진행된 워크숍이 줄어든 반면에 1일 간 진행된 워크숍과 반일(1/2일) 간 진행된 워크숍이 크게 증가되었다.

표 1. 최근 3년 간 AEA에서 진행된 진행기간별 워크숍

(단위 : 회)

년 도 워크숍 기간	2006년	2007년	2008년
2일	14	7	8
1일	19	28	27
1/2일	13	15	21
합계	46	50	56

자료 :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AEA, 2006; 2007; 2008)에 의거 작성.

제공된 워크숍을 수준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총 46개 주제 중 43.5%(20개 주제)가 초급(beginner) 수준이었고, 54.3%(25개 주제)가 중급(intermediate) 수준이었으며, 2.2%(1개 주제)가 고급수준이었다. 2007년도에는 총 50개 주제 중 44.0%(22개 주제)가 초급수준이었고, 52.0%(26개 주제)가 중급수준이었으며, 4.0%(2개 주제)가 고급 수준이었다.

표 2. 최근 3년간 AEA에서 제공된 수준별 워크숍

(단위: 회)

워크숍 수준 \ 년 도	년 도		
	2006년	2007년	2008년
초급	20(43.5%)	22(44.0%)	30(53.6%)
중급	25(54.3%)	26(52.0%)	25(44.6%)
고급	1(2.2%)	2(4.0%)	1(1.8%)
합계	46(100.0%)	50(100.0%)	56(100.0%)

* ()안은 백분비 %

자료: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AEA, 2006; 2007; 2008)에 의거 작성.

2008년도에는 총 56개 주제 중 53.6%(30개 주제)가 초급수준이었고, 44.6%(25개 주제)가 중급수준이었으며, 1.8%(1개 주제)가 고급수준이었다. 년도에 따라 달랐으나 평균적으로 볼 때 제공된 워크숍들은 초급수준과 중급수준이 각각 약 50% 정도씩 점하고 있었다.

워크숍의 주제별로 보면 2006년에는 평가기획, 보고서작성, 활용 등 평가실무에 관한 워크숍이 약 40% 정도로 많았으나 2008년도에는 25% 정도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2006년도에는 평가역량구축(evaluation capacity building)에 관한 워크숍이 한건도 없었으나 2008년도에는 약 9% 정도로 평가역량구축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계량적 방법, 질적 방법 및 실험적 방법 등 방법론에 관한 워크숍이 20% 이상으로 매년 꾸준히 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어 평가방법론 훈련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워크숍이 매년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3. 최근 3년간 AEA에서 진행된 주제별 워크숍

(단위 : 회)

주 제	년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평가실무 (평가기획, 보고서 작성, 활용 등)	18 (39.1)	12 (24.0)	14 (25.0)
분석방법 및 실험설계 (계량적 및 질적방법, 실험적 접근방법 등)	10 (21.7)	10 (20.0)	13 (23.2)
논리모형의 작성과 모델링 (논리모형, 이론에 기초한 평가 등)	6 (13.1)	6 (12.0)	5 (8.9)

측정 (측정도구, 성과측정, 성과관리 등)	5 (10.9)	8 (16.0)	4 (7.1)
평가역량 구축	- (0.0)	1 (2.0)	5 (8.9)
평가접근방법 (참여적 평가, 협동평가, 시스템접근, 니즈평가, 컨셉트 맵핑 등)	5 (10.9)	10 (20.0)	8 (14.3)
기타 (비디오 인터뷰, 인터넷 서베이, 컨설팅, 평가 마케팅 등)	2 (4.3)	3 (6.0)	7 (12.5)
합 계	46 (100.0)	50 (100.0)	56 (100.0)

* ()내는 백분비(%)

자료: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AEA, 2006; 2007; 2008)에 의거 작성.

워크숍 주제 당 참여인원은 워크숍 주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본 연구자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매년 각각 3개 주제의 워크숍에 참여하여 총 9개 워크숍을 참여 관찰하였는데, 참여관찰 한 바에 의하면 주제 당 워크숍 참여인원은 적은 경우에는 약 20명, 많은 경우에는 50명 정도였다.¹⁹⁾ 평균적으로 매 워크숍 당 참여인원이 약 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워크숍에 참여한 연 인원은 2006년도에는 약 1,400여 명, 2007년도에는 약 1,500여 명,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약 1,7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속은 참여 관찰한 바에 의하면, 외국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미국사람들이었으며, 소속한 조직별로는 대학과 대학연구기관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소속한 사람들이 약 50%, 정부기관에 소속한 사람들이 약 30%, 그리고 NGO단체, 평가컨설팅회사, 평가연구비를 지원하는 재단, 서베이 전문회사 등에 소속한 사람들이 약 2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⁰⁾ 이렇게 본다면 2008년도에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교육기관에 소속한 사람이 약 850여 명(연 인원), 정부조직에 소속한 사람이 약 510여 명(연 인원), 그리고 NGO 등에 소속된 사람들은 약 34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AEA는 매년 워크숍을

19) 워크숍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일 진행되는 워크숍 가운데 2개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한 주제에 지망자가 너무 많으면 선착순에 의하여 제2지망으로 돌리기 때문에 한 주제 당 50명 이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제공하기로 된 워크숍도 지망자가 일정규모에 미달하면 해당 워크숍을 취소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규모의 워크숍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 각 워크숍 진행자는 워크숍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경우 참여자 본인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자기소개 주요 내용은 소속기관, 관심분야,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동기 등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통해서 평가와 관련된 사회 각 부문 조직들의 평가역량발전에 기여할 지적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컨퍼런스

2008년도 AEA 컨퍼런스는 워크숍이 끝난 후 2008년 11월 5일 오후부터 8일까지 3.5일간 계속되었다. 이 컨퍼런스에는 총 약 2,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AEA 컨퍼런스 개막총회를 필두로 600여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세션이 진행되는 시간의 길이는 세션에 따라 다른데 1시간 30분 진행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45분 세션도 포함되어 있다. 세션들은 TIG가 스폰서하여 구성한다. 세션의 유형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라운드 테이블, 논문발표 세션, 전문가워크숍, 평가에 관한 전시(demonstration), TIG회합 등 다양하다.

AEA 컨퍼런스에서 진행한 세션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하는 것은 AEA 구성원들의 최근의 관심사를 반영할 뿐 아니라 정책평가역량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2008년도 AEA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세션의 수는 600여개에 이르고 매우 다양하여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은 대개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으나 세션의 경우에는 한 세션에서 적개는 2개, 많게는 4개 정도의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었으며, 평균 3개 정도의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세션에서도 그 성격이 약간 다른 논문들, 즉 평가방법론의 이슈를 다루는 논문들이 있는가 하면, 평가실무나 평가정책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도 있어서 세션의 유형을 분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유형분류의 수를 몇 개로 할 것인지도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만일 유형의 수를 5~6개로 단순화하면 분류하기는 쉬운 반면에 세션의 내용들이 중첩되어 세션의 성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세션의 유형을 너무 많게 하면 분류작업이 매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라운드 테이블을 포함한 논문발표 세션들을 9개로 분류하고, 기타 각종 회합의 성격을 가진 세션들을 하나로 묶어서 총 10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주제별 세션분류의 내용과 세션의 회수 및 구성비는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세션의 분류기준은 세션의 명칭, 세션에 포함된 발표논문의 명칭과 성격, 스폰서한 TIG의 성격 등이었다. 동일한 세션 내에서도 발표된 논문들의 주제가 다양한 경우에는 주로 세션을 지원한 TIG의 성격을 참조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이 불가피하였다.

세션들 가운데 평가실무에 관한 세션이 26.3%로 가장 많았다. 물론 대부분의 발표논문들이 어느 정도는 평가실무와 관련이 있겠으나 세션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평가실무라고 붙여진 것 이외에도 평가기획, 보고서작성, 프리젠테이션, 평가활용, 평가정책 등에 관한 이슈를 다룬

성격의 논문들이 세션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가실무세션으로 분류하였다.

표 4. 2008년도 AEA 컨퍼런스 주제별 세션

주	제	세	션
평가실무 (평가기획, 보고서작성, 프리젠테이션 활용, 평가정책 등)		158	(26.3)
분석방법 및 실험설계 (계량적 및 질적방법, 실험적 접근방법, 방법론적 이슈 등)		58	(9.7)
논리모형의 작성, 모델링 및 변화이론 활용 (논리모형, 모델링, 이론에 기초한 평가 등)		26	(4.3)
자료수집과 측정 (측정도구, 성과측정, 성과관리, 자료수집, 평가도구, 산출결과측정 등)		56	(9.4)
평가역량발전 (증거에 기초한 정책, 평가역량구축·발전, 정책학습, 조직학습, 평가훈련, AJE 기고가이드라인설명, 전문가워크숍 등)		95	(15.8)
평가접근방법 (참여적 평가, 협동평가, 임파워먼트 평가, 시스템접근, 니즈평가,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등)		66	(11.0)
과정 및 산출결과 평가		62	(10.3)
영리 및 비영리분야 평가 (영리단체, 민간연구소, 비영리조직의 업무 등)		17	(2.8)
기타 (비디오 인터뷰, 인터넷서베이, 이미지활용, 컨설팅, 평가마케팅 등)		20	(3.4)
각종 회합 (총회, TIG 미팅, AEA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 AEA 수상자들과의 대화, 학생수상자에 대한 논의 등)		42	(7.0)
	합	600	(100.0)

* ()내는 백분비(%)

자료 : 22nd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 Evaluation 2008(Denver, Colorado, November 3-9, 2008)에 의거 작성.

AEA 구성원들이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 공사기관의 연구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결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많았던 세션은 평가역량발전에 관한 세션으로 전체의 15.8%를 점하였다. 평가역량발전에 관한 세션에서는 증거에 기초한 정책, 평가역량구축과 발전, 정책학습,

조직학습, 평가훈련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룬 성격의 논문들이 주로 발표되었다.

특이한 점은 평가학회에 처음 기고하는 기고자들을 위하여 미국평가학회지인 AJE(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에 기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세션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과 학회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워크숍 이외에도 컨퍼런스 중간에도 세션의 형식을 빌려 전문가들이 직접 시행하는 많은 수의 전문가 워크숍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²¹⁾ 세 번째로 많은 세션은 참여적 평가, 협동평가(collaborative evaluation), 옴파워먼트 평가(empowerment evaluation), 시스템접근, 니즈평가,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등 평가접근방법에 관한 이슈들을 다룬 세션이었다. 그 다음은 과정 및 산출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룬 세션 10.3%, 분석방법 및 실험설계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룬 세션 9.7%, 자료수집과 측정을 다룬 세션 9.4% 등의 순이었다. 새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중의 하나는 영리단체(은행 등), 민간연구소, 비영리조직의 업무와 관련된 평가이슈들을 다루는 영리 및 비영리분야 평가에 관한 세션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평가에 관한 사회적 수요가 정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대규모 영리 및 비영리 조직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점이다. 또한 비디오 인터뷰, 인터넷 서베이, 이미지 활용, 컨설팅, 평가마케팅 등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는 세션들도 2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기술발전과 평가를 하나의 전문업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들의 발전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008년도 AEA 컨퍼런스에 참여한 등록인원이 2,500여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매 세션에 참여한 인원들도 소규모 세션에는 20여 명에 불과하였지만 대규모 세션에는 70~80여 명에 이르기도 하여 각 세션을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매우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4. 몇 가지 시사점

앞에서는 미국평가학회의 운영과 워크숍 및 컨퍼런스 진행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미국평가학회의 운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미국 평가학회가 매트릭스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행정학, 교육학, 보건학, 환경학 등 각 학문영역별로 학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여러 학문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 예컨대 평가와 같은 분야는 어떤 학문을 전공하든 또 하나의 제2의 전공분야로

21) 전문가 워크숍의 예로서는, "the Built-in Evaluation Framework : Integration and Implementation of Built-in Evaluation Systems", "Evaluation Policy : Integrating Evaluation Offices into the Surrounding Agency Culture." 등을 들 수 있다.

생각하여 각 학문영역에 관계없이 새로운 하나의 공통적인 연구영역으로 생각하여 학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학문 영역에서 발전시킨 평가에 관한 이론과 방법들을 공유하고 통찰력을 길러서 평가분야의 학문발전을 촉진하고, 학문적 네트워크 연계를 확장하며, 각 분야에 학습과 응용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제별 TIG의 운영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관심분야의 TIG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 TIG에는 참여인원이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평가분야에 대한 학회가 학문분야별로, 예컨대 정책평가(정책학 분야),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교육학 분야), 복지프로그램평가(사회복지학 분야), 보건프로그램평가(보건학 분야), 형사 프로그램평가(법학 분야), 환경프로그램평가(환경학 분야) 등으로 분산되어 조직되고, 각 분야 평가학회 별로 TIG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과도하게 많은 수의 TIG를 운영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각 TIG별로 참여인원이 줄어들어 어떤 TIG에는 최소한의 필요인원(critical mass)에도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도 어려워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논문발표 등을 통한 관심분야별 이론과 연구방법론의 발전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질 수 있고, 회원들 상호간에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학문분야에서 평가를 전공하는 연구자나 실무자들이 하나의 학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평가학회(AEA)에는 학계는 물론 비정부기관(NGO), 미국 각 정부부처, 의회, 감사원(GAO), 예산처(MBO), 지방정부, 각종 연구재단 및 연구비 지원기관, 민간 기업조직, 각종 연구용역업체(consulting firm), 여론조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습(learning)할 뿐 아니라 정부가 평가를 통하여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 중앙정부조직, 각급 지방정부조직들이 평가를 통하여 배우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정부의 능률성과 효과성, 합목적성 등을 높이도록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학문분야별로 평가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하나의 평가학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면 평가이론과 방법을 발전시키는데도 더 효과적이고, 아울러 평가를 통하여 사회와 정부가 학습하고 사회 각 조직들의 평가역량을 발전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평가학회(AEA)에는 학자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 뿐 아니라 정부의 박사급 실무자, 비정부기관(NGO)의 실무자, 각급 연구비 지원재단의 실무자, 연구용역업체(consulting firm)의 실무자 등 사회 각 분야 조직에서 평가를 연구하거나 실행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같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학계와 실무계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학문연구결과가 바로 정부조직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각 조직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AEA는 컨퍼런스 이외에도 매년 컨퍼런스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3.5일)동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워크숍들의 수준은 주로 초급 및 중급수준으로 대학교에서 평가분야를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사회에 진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평가분야의 이론과 방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거나 새로이 발전하고 있는 평가분야 이론과 방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AEA의 이러한 접근방법이 회원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AEA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사회에서 평가지식의 활용과 보급을 촉진시키고 있다. 평가분야에 대한 저술 가운데 Michael Q. Patton의 활용에 초점을 둔 평가(Utilization Focused Evaluation)가 평가분야에서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도 평가연구결과나 평가방법론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영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AEA의 접근방법이 우리평가학계가 학회를 운영하는데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